

노대통령에 파병반대 호소문 정책의미의 장군죽비도 함께

반전평화불교대책위

이라크 추가 파병 철폐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파병 반대 호소문과 장군죽비가 전달됐다. 불교계 17개 단체로 구성된 반전 평화불교대책위원회(이하 불교대책위)는 11월 5일 만해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잡듯한 것을 경책한다는 의미에서 노 대통령에게

장군죽비를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장군죽비와 파병 반대 호소문은 같은 날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이 청와대 민원실로 접수시켰다. 불교대책위는 또한 각 정당 불자 국회의원(총 41명) 전체를 대상으로 파병 반대 호소문을 전달하고, 각 단체별로 대상 불자국회의원을 선정해 면담을 추진하며,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시 서한 전달 등 다양



반전평화불교대책위 관계자들이 장군죽비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원칙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파병을 반대하는 일반 불자들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 '파병반대 평화의 등 달기' 운동 △ 청와대에 릴레이 항의 서한 전달 △

사찰 및 불교단체에 파병 반대 배너 부착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교 소수자인권 시민단체인 '불교소수자의 벗'은 5일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인 김진재, 도종이, 박현기, 소광호 의원에게 이라크 추가 파병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한편 대책위는 11일 청년단체들이 결성한 이라크파병반대평화단 식주진모임의 파병반대 하자하자 평화단식 캠페인에 참가, 파병반대 철회여론 조성과 평화와 생명을 지키려는 뜻을 대내외에 알렸다.

남동우 · 김은경 기자

한국사람 2명중 1명 종교적 기부 금액은 22만원 이하다 가장 많아

황창순 교수 논문에서

우리나라 국민 2명중 1명은 종교적 기부에 참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1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순천향대학교 황창순 교수(사회복지학과)의 '개인기부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황 교수의 논문은 아름다운재단, 불린티어 2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2002년 7~8월에 개인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황 교수는 논문에서 종교적 기부 경향을 갖춘 사람이 아름다운재단 45.4%, 불린티어 21 42%로 조사돼 우리나라 사람 2명중 1명은 종교적 기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기적 종교 기부에 대해 조사한 KDI의 경우 30.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종교적 연간 기부 액수는 아름다운재단의 경우 20만원 이하 36.9%, 20~49만원 23.3%였고 불린티어 21은 22만원 이하 61%, 1~5만원 30.6%로 집계돼 2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처에 대한 조사에서 아름다운재단은 자신·모금단체 38.2%, 언론기관 38%, 사회복지시설 20.3% 순이었고 불린티어 21의 경우 언론기관 37.3%, 종교단체 27.6%, 사회복지기관 14.7%로 조사돼 개인기부자들은 언론기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기부횟수는 연간 2~3회(36.9%)가 제일 많았고 기부방법은 전화 ARS(42.1%)를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형 기자



'손보시 봉사단'이 봉은사 신도들에게 안마·침술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해광명인 불자회 '손보시 봉사' 첫 나들이

"절에서 오십전 치료 받다니..."

"부처님 뜻이 있었나 봐요. 절에서 오십전 치료를 다 받게 되네요. 선생님 허리도 좀 봐주세요." 머뭇거리기만 하던 이계순 씨(38, 서울 논현동)가 허리를 들이민다.

"어휴, 보살님은 하루에 다 고쳐 갈려구 그래요." 어깨를 주물러 주던 시각장애인 이찬 씨(57) 의자에 이내 범당 안은 웃음바다.

11월 2일 봉은사 선불당. 자녀의 수능시험 기도를 한 학부모들, 49재를 회향한 사람들, 일요일 법회를 봉행한 신도들 등 고단한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손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해광명인불자회(회장

유정종) '손보시 봉사단'이 바로 그들이다.

올해로 창립 14년을 맞는 해광명인불자회는 그동안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마와 침술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들이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점차 음성경전 발간을 위해서다.

부처님 법이 좋아 모인 이들이었지만 점차 점차 음성경전이 없어서 점차 점차 봉행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사찰신도들을 대상으로 손보시 봉사활동

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점차·음성경전 발간 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3시간 정도 계속된 봉사활동. 미영순 회장(사단법인 저서역인연합회)은 아쉬움이 남는다. "첫날이라 그런지 신도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다음 봉사에는 더 많은 불자들이 찾아 주겠죠?"

그러나 자비손 봉사단은 실망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낄 그날을 위해. (02)737-1053

이도형 기자

수익금모아 전자·음성경전 발간계획

tonyee77@buddhapia.com

"여래의 사자돼 부처님법 펼것"

부루나전법봉사단 조계사서 발대식

부루나전법봉사단(단장 계성)이 11월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형중 전국교법사 단장의 발기문 낭독, 예비역군법사 회장 성광스님과 양성홍 포교사단 부단장의 축사, 법장사 주지 퇴휴스님 전법봉사단 출범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에서 단장 계성스님은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가슴에 담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불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래의 사자가 되어 전법을 펴겠다"고 밝혔다.

부루나전법봉사단은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총재로, 전등사 주지 계성스님을 단장으로 추대했으며, 사무총장에는 광동여교 이화주 교감을 선임했다. 김원우 기자



부루나전법봉사단 발대식이 11월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인불가족천민 여성수행센터 건립

재가연대·우리는 선우, 1만달러 전달

인도 마하라쉬트라 주 나그푸르에 불가족천민 여성수행센터가 건립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재가연대)와 우리는 선우는 최근 인도불교지원사업 2차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TBMSG(범 세계 불교교단우의회, Trailokya Bauddha Mahasangha Sahayaka Gana) 산하 재단인 잠부드 비파(Jambudvipa)에 불가족천민 여

성수행센터 건립을 위해 1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가연대는 "TBMSG 인도지부가 불가족천민 여성들에게 글자교실, 직업훈련, 명상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불가족천민 중 더욱 소외되고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수행센터를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런 나눔 콜택시
1588-5532

공론조사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포장한 대중주의이다 반환경 · 반불교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정진할 것이다

우리는 9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에게 공론조사를 요청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론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은 노무현정부의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산물이다. 환경문제,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 관동도로 문제에 이르러서는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공생의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집짓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좌편우고하는 가운데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이런 실상이 날날이 드러나자 공론조사라는 그럴싸한 방안을 들이밀고 있는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포장한 대중주의에 다름 아니다.

국립공원은 절대 보존구역이다. 이곳만은 반드시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지역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길이 4km, 폭 40m의 대형터널을 뚫는 것은 명백한 국립공원 파괴 행위이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공론조사라는 방법을 통해 국립공원 파괴 행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환경 무대백' 정부임을 스스로 선언하려는 것인가. 국립공원마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의 개발사업으로 파괴하는 정부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공론조사 강행 의도는 거짓말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모면하려는 속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공약으로 "북한산 관동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대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동북아 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빌미로 불교계를 노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타저나오는 분노를 억제하며 진심으로 바란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불교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반환경 · 반불교 대통령과 정부를 원치 않는다. 환경의 보전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공생을 구현하는 거룩함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 파괴에 맞서 위법망구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수탈을 당연시했던 지난날의 참회이기도 하다. 국립공원이 파괴되는 것은 또한 사찰의 파괴이며, 수행과 수행의 억압이다. 불교는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탄압받았는데, 21세기에 이르러 정부와 사업자가 손잡은 '개발연립'에 의해 도량이 파괴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우리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반환경 · 반불교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며 정진할 것이다.

불기 2547(2003)년 11월 7일

불 교 환 경 연 대